

2011.06.13 미래정책연구실

## □ FAO, 식품가격 상승세 2012년까지 지속될 듯

## 1. FAO(2011.06.07), The Wall Street Journal(2011.06.08) 주요 내용

○ FAO의 반기 보고서인 'Food Outlook'에 따르면 식품가격 상승세는 2012년까지 지속될 것이며, 가격 변동성도 심화될 것이라고 전망함.

- 올해 세계 곡물 생산량은 전년대비 3.5% 증가한 23억 톤으로 전망되지만 식품가격 상승세를 꺾기에는 충분하지 않은 생산량임.

○ FAO의 통상부 이사인 데이비드 할람(David Hallam)은 “농산물의 수급 상황이 불안정하여 식품 가격지수가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, 이는 저소득 빈곤국가들을 위협하고 있다”고 주장함.

- 올해 세계 식품 수입액은 전년대비 21% 증가한 1조 2,900억 달러로 저소득 빈곤국가들은 올해 식료품 수입에 30%를 더 지출해야 함.

## &lt;5월 식품가격지수 하락&gt;

○ 5월 세계 식품 가격지수는 전월의 235포인트에 비해 약간 하락한 232포인트로 지난해 동기대비 37% 상승함. 반면 곡물과 설탕의 가격지수는 전월대비 약간 감소한 반면 육류와 유제품 가격 지수는 상승함.

- 곡물: 265포인트(4월) → 262포인트(5월)

- 설탕: 346포인트(4월) → 311포인트(5월)

- 육류: 181포인트(4월) → 183포인트(5월)

- 유제품: 229포인트(4월) → 231포인트(5월)

## &lt;곡물 수급 현황&gt;

○ 올해 세계 밀 생산량은 러시아의 밀 생산량 증가로 전년대비 3.2%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.

- FAO의 분석가인 압돌레자 아바시안(Abdolreza Abbassian)은 “올해 흑해 지역의 날씨가 좋아 러시아는 850만 톤의 밀을 수출할 것이며 2011/12년도 곡물 수출량은 1,100만 톤이 될 것”이라고 전망함.

○ 반면 유럽의 가뭄과 미국 북부와 캐나다에는 강수량이 많아 밀 작황이 부진함. 특히 서유럽 최대 밀 생산지인 프랑스의 올해 밀 생산량은 지난해의 3,560만 톤에서 3,100만 톤으로 감소할 것임.

- 이로 인해 밀 수출량은 지난해의 1,280만 톤에서 600~700만 톤으로 감소할 전망이다.

○ 밀 뿐만 아니라 옥수수와 보리 등과 같은 잡곡 공급량도 부족할 것으로 전망됨.

- FAO는 잡곡의 재고비율을 2010/11년도의 14.2%에서 2011/12년도에 13.9%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함.

## &lt;축산농가 피해&gt;

○ 유럽의 가뭄으로 풀이 자라지 않아 축산농가도 피해를 입고 있음. 축산농가는 사료구입에 나서고 있으며, 일부는 사료 구입비 부담으로 인해 가축을 예정보다 일찍 시장에 팔고 있음.

## □ G20, 상승아는 식품가격에 공동 대응 압입

## 1. FINANCIAL TIMES(2011.06.07) 주요 내용

○ 한편 G20국가들은 농산품의 가격 변동성을 줄이기 위해 “농업시장정보시스템(Agriculture Market Information System: AMIS)”을 구상하여 세계 재고와 생산에 관한 시장정보를 수집 및 분석할 계획임.

- 이는 생산감소, 수요증가, 재고부족 등으로 상승하고 있는 국제 식품가격 때문에 2007~2008년과 같은 식량위기의 재현을 방지하기 위해 마련됨.

○ 올해 G20 회의 의장국인 프랑스 브루노 메이르 농림부 장관은 “시장은 맹목적으로 운영될 수 없으며, 재고와 생산에 관한 믿을 수 있는 정보가

필요하다”고 주장함.

- 프랑스는 이번 달 22~23일 파리에서 개최되는 G20회의에서 식량안보를 주요 의제로 추진할 계획이며, 관계자들에 따르면 이번 회의에서 “AMIS”는 핵심 의제가 될 것이라고 전망함.
  - 이번 회의를 통해 “AMIS”에 관한 세부적인 내용 및 권한을 마련하고 사무국은 FAO에 설치할 계획임.
- 이번 “AMIS” 프로젝트에는 현재까지 농산물의 재고수준을 비밀로 했던 중국이 참여할 예정임.
  - 메이르 장관은 “중국정부는 정치적 이유로 재고수준을 완전히 공개하는 것을 꺼리고 있지만 점차 단계적으로 공개할 것”이라고 주장함.
- G20 관계자에 따르면 “AMIS”는 올해 말쯤에 운영될 예정이며, 초기에는 밀, 옥수수, 쌀, 대두의 월별자료를 제공할 예정임.

\*자료작성: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미래정책연구실